

디지털혁신 통해 최적 솔루션... 국민의 평생 투자파트너로

증권사 경영전략

KB증권

박정림·김성현 대표이사 연임성공
사모펀드 사태 고객 신뢰 회복 위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기업경영 필수 ESG 전담팀 신설도

KB증권이 중장기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최적의 투자솔루션 제공'을 모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약된 업무



환경이 지속돼 디지털 경쟁이 더 거세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대표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김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 부담에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KB증권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이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공동 대표는 최근 신년사에서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과 더욱 탄탄해진 조직역량을 확보했다"며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금융회사의 생명과도 같은 고객의 신뢰를 위한 리스크, 내부통제 체계의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초(超) 경쟁환경 대응해야"

KB증권은 2021년 핵심 목표로 ▲비즈(Biz) 핵심경쟁력 레벨업 ▲디지털 기반의 Biz역량 및 플랫폼 기반 Biz모델 혁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최적의 투자솔루션 제공"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두 대표는 "디지털 초(超)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Biz역량 강화와 플랫폼 기반 Biz 모델 혁신을 가속화 해야 한다"며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 빅테크(big tech·대형 정보기술기업) 기업의 증권업 진출 확대,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본격화로 금융기관 간 치열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 산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금융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

방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빗장이 풀려 증권사 간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정림·김성현 대표는 "데이터 중심 고객분석을 통해 고객여정(CJM)별 스마트 오퍼링(Smart offering)과 마블(M-able) 중심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달라"며 "디지털 에코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확장 등을 통해 고객 유입 확대와 비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가치(밸류·value) 창출에 디지털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ESG위원회 신설

KB증권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에 강화했다. 지속 가능 발전과 ES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는 ESG에

대한 권고를 넘어 관련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추세다.

두 대표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된 ESG 경영에 대해서는 그룹의 ESG 전략과 연계해 전사 차원의 ESG 경영 체계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SG 로드맵(Road-Map)의 수립, 환경 관련 탄소배출량 절감, ESG 관련 투자 및 상품 확대 등을 통해 ESG 경영을 내재화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지난해 말 이사회 산하에 ESG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ESG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제공 강화를 위해 리서치센터내 'ESG 솔루션팀'을 신설하고, ESG 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선제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리스크심사본부'도 확대 개편했다.

이들은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고객 중심의 사고와 엄격한 윤리의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신설된 리스크심사본부, 내부통제혁신부 그리고 기존 통제 관련 부서들은 전사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체계에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15조 IPO 몰려온다... 주관사 유치경쟁 후끈

올해 대어급 IPO 줄줄이 예고
이달 청약 13곳 중 7곳 상장 목표
한투·미래에셋·NH 경쟁 치열

올해도 기업공개(IPO) 시장이 뜨거울 전망이다. 수조원대 기업 가치를 지닌 '대어(大魚)'들의 상장이 예고된 가운데 시장에서 전망하는 IPO 공모금액은 최대 15조원에 달한다.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 만큼 '빅딜'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역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투자사업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자은행(IB)과 주식발행시장(ECM)을 주요 수익원으로 인식한 증권사 간 자리다툼이 예상된다.

◆'IPO 열풍' 올해도 계속

올해 첫 공모주로 주목받았던 엔비티가 신기록을 써냈다. 12~13일 진행된 일반 공모 청약에서 4397.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루다의 기록(3039.56대 1)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앞서 엔비티는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1만3200~1만7600원)의 상단을 초과한 1만900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엔비티가 흥행에 성공한 만큼 후발주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엔비티를 시작으로 숨가쁜 일정이 이어진다. 이달 안에 청약이 예정된 기업만 13개사다. 선진뷰티사이언스, 씨이랩, 씨엔투스성진, 모비릭스, 핑거, 솔루션,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와이더플래닛, 레인보우로보틱스, 아이퀘스트, 유일애

(지난해 증권사별 IPO 딜 수수료 순위)

순위	증권사명	수수료(억원)	점유율(%)	이자율(BP)
1	한국투자증권	248	19.40	222.40
2	미래에셋대우	244	19.10	276.99
3	NH투자증권	199	9.35	128.26
4	삼성증권	116	9.07	217.00
5	KB증권	96	7.35	236.77

네테크, 뷰노 등이다. 이 가운데 약 7개사 정도가 이달 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스팩(SPAC) 상장기업 4곳까지 포함하면 최대 두자리수의 상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개사가 상장했던 2011년 1월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11년 이후 8년 동안 1월은 회계 결산의 영향으로 1~4개 기업만 증시에 입성하며 '상장 비수기'로 통했다.

공모주를 향한 관심도 아직 뜨겁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공모금액 측면에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도달할 것"이라며 "IPO 예정기업 수는 약 120~140여개로 공모금액은 10조5000억~12조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증권은 이보다 높은 1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붙은 3강' 경쟁... 끝까지 간다

주관 계약을 따내기 위한 증권사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3강으로 평가되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의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전과 달리 빅딜뿐 아니라 중소형 딜 수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해 IPO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차지한 주인공은 한국투자증권이다. 18건의 주관계약을 따내며 248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시장 점유율이 19.4%에 달한다. 미래에셋대우(20건·244억원)가 간발의 차로 2위를 기록했고 NH투자증권(15건·119억원), 삼성증권(10건·116억원), KB증권(9건·9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은 미래에셋대우다. 올해 가장 큰 대어로 평가되는 크래프톤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야놀자, 바디프랜드, 호반건설 등 대형 딜을 연달아 따냈다. 벌써부터 2018년 이후 3년 만에 공모 실적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 기대감이 감지된다.

그래도 결과는 알 수 없다. 대형 후보군은 아직 즐비하다. SK그룹 소속 ADT캡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이 상장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그룹 역시 주관사 선정을 마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를 제외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M이 남아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서울 전세난민, 수도권 주목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해볼까

건설사, 접근성·비규제지역 내세워
경기도 양평·수원 등 분양 잇따라

서울지역 집값 급등과 전세난으로 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었다.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세값도 오르면서 '전세 난민'으로 전락한 세입자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

일부에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면 수도권에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평균이 5억원을 돌파해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상황이다.

◆접근성·주거환경 좋은 수도권 선호

내집마련 실수요자가 찾는 수도권 아파트의 최우선 조건은 서울과의 접근성이다. 출퇴근길이 편리하고 언제라도 쉽게 서울로 오갈 수 있는 전철망과 다양한 도로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8분이다.

여기에 초중고교와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 아파트 단지의 시설 쾌적성 여부도 살펴야 한다.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될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우수한 서울 접근성,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과 관련한 규제가 적다는 점을 무기로 내세



양평역 한라비발디 조감도.

우고 있다.

◆분양 앞둔 수도권 유망 단지는

(주)한라(옛 한라건설)는 2월 중 경기도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분양한다. 전체 단지가 1602세대로 양평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최고의 매력은 교통환경이다. 경의중앙선·KTX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한화건설은 1월 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서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64~84㎡ 아파트, 1063세대 규모다. 수원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